

к с і

涵虛堂의 경기체가 고찰

-<안양찬>과 <미타경찬>을 중심으로-

조연숙*

<차례>

- | | |
|---------------|----------------|
| I. 서론 | III. 불경의 변용 양상 |
| II. 불경의 수용 양상 | 1. 찬양적 변용 |
| 1. 구체적 수용 | 2. 교화적 변용 |
| 2. 요약적 수용 | IV. 맺음말 |

I. 서론

涵虛堂 己和는 고려 우왕 2년(1376)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다. 함허당은 그의 堂號이며, 기화는 諱, 호는 得通이다. 俗姓은 劉氏이며, 아버지의 諱는 聽으로 벼슬이 典客寺事에 이르렀으며, 어머니는 方氏였다.

21세(1369) 때 성균관에서 친구의 죽음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 출가하여 관악산 의상암에서 머리를 깎고, 이듬해인 이태조 6년(1397) 이른 봄에 檜岩寺에 이르러 처음으로 王師 無學의 法要를 들었다. 그 후 여러 산을 遊歷하다가 태종 4년(1404) 봄에 다시 회암사로 돌아와 방한칸에 獨居하며 보고 듣는 것을 일체 끊고 밤새워 經行 정진하였다. 이후 功德山 大乘寺, 천마산 관음굴, 佛禱寺에서 교화와 宗風 수립에 힘썼으며, 태종 14년(1414)에는 慈母山 烟峯寺에 이르러 작은 방을 정하여 涵虛堂이라

* 숙명여자대학교

하고 3년간 經行 勤修하였다.

세종 2년(1420) 강릉 오대산 靈鑑菴에 들어가 懶翁의 眞影에 공양하고 머물렀는데, 꿈에 한 神僧이 나타나 대사에게 이름을 己和, 호를 得通이라 하라고 이르므로 절하며 공손히 받았다. 다음날 월정사에 내려와 一室을 宴處로 하여 평생을 마치려 하였으나, 이듬해 세종의 명에 의하여 개성 大慈寺에 살면서 先妣大妃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王臣들을 위한 설법을 하였다. 세종 6년 상서하여 사퇴한 후 길상산, 공덕산, 운암산 등 여러 산에 노닐다가 영남 회양산 鳳巖寺로 들어가 퇴락한 사찰을 중수하고, 세종 15년(1433) 입적하니 世壽 58세, 法臘 38세였다.¹⁾

그는 일생동안 많은 經論의 註疏와 詩文을 남겼다. 저서로는 『涵虛堂得通和尚語錄』을 비롯하여 『圓覺經疏』 3권, 『般若五家解說誼』 1권, 『永嘉集說誼』, 『顯正論』 1권, 『繪貫』 1권, 『儒釋質疑論』 등이 있다. 그는 조선 초기 척불정책의 와중에서 불교를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顯正論』을 통하여 당시 척불론의 기수였던 정도전의 「佛氏雜辨」의 배불론에 대항해서 불교의 정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²⁾

조선 초기의 불교는 건국이념에 따라 승유억불책이 강화됨으로써 위축된 것만은 사실이나 궁중의 信佛과 그 외호에 힘입어 불교는 민중신앙으로 면면히 이어졌으며, 특히 세종, 세조 대에 선초 불교계는 일대 성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세종, 세조 때에 불교가 궁중의 적극적인 외호와 지원을 받게 되자 이에 편승하여 불교의 포교활동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이와 같이 불교가 적극적인 궁중의 비호를 받던 시기에 포교의 강화수단으로 자연히 나타난 것이 바로 불교계 경기체가라 할 수 있다. 포교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시 궁중이나 민중들에게 유행하는 시가 형태가 그 수단으로 이용되기 마련인데, 조선 초기에는 경기체가 단연 시가의 주류를 이루었던만큼 이 시대의 불교계 경기체가가 창

1) 불교학연구회편, 『한국고승집』, 이조시대 1, 경인문화사, 1974, 1~2쪽.

「함허당등통화상행장」, 16~21쪽 참조.

2) 임기중 외, 『경기체가 연구』, 태학사, 1997, 161쪽.

작, 향유된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³⁾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함허당 역시 경기체가를 지었는데 <彌陀讚>, <安養讚>, <彌陀經讚>이 바로 그것이다. <미타찬>은 서방 극락세계의 교주인 아미타불을 찬양한 노래로서 『정토삼부경』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 재편성한 작품이다. <안양찬>은 아미타불의 국토인 극락세계를 『아미타경』에 묘사된 것을 바탕으로 찬양한 것이며, <미타경찬>은 『아미타경』의 공덕을 찬양한 노래이다. 이 중 <안양찬>과 <미타경찬>은 『아미타경』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약간 변용시켜 그 뜻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불경의 내용을 쉽게 풀어 포교에 적극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함허당의 경기체가 중 <안양찬>과 <미타경찬>을 『아미타경』 원문과 대비해 봄으로써 그 수용 양상을 살펴보고, 이어 이를 어떻게 변용시켜 작품화했는지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불경의 수용 양상

1. 구체적 수용

(1) <안양찬>

<안양찬>은 『아미타경』에 묘사된 극락 세계의 모습을 바탕으로 아미타불의 국토인 극락을 찬양한 노래로,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사를 제외한 나머지 9장이 모두 『아미타경』의 내용을 좀더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김문기, 「불교계 경기체가 연구」, 『성곡논총』 22, 성곡학술문화재단, 1991, 6~7쪽.

第二 依正俱勝	제2 의(依)와 정(正)이 함께 훌륭하다
曰極樂 曰安養 名彼佛土	극락이요, 안양이라 함은 저 불국토를 말함이요
無量光 無量壽 名彼如來	무량광, 무량수는 저 여래를 말함이라
但聞其名 其中活計 一念便知	그 이름만 듣고 그 가운데 살 계책을, 일념으로 알았으니
欣彼往生 亦希有	극락 왕생을 기꺼워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도다!
佛於彼國 現住說法 (再唱)	극락세계 부처님, 지금 머물며 설법하시니(재창)
海會照然	성회(聖會)가 바다처럼 밝도다! ⁴⁾

제2장은 이 노래의 본사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먼저 정토를 제시하고, 그곳에서 무량광, 무량수로 일컫는 아미타불이 지금도 설법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는 『아미타경』 본론의 시작 부분과 그 내용이 아주 유사하다. 『아미타경』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십만 억 불국토를 지나서 극락이라 이름하는 세계가 있느니라. 그 국토에 부처님이 계시는 데 아미타불이라 하며 현재도 법을 설하고 계시느니라.⁵⁾

『아미타경』에는 석가모니가 사리불을 설법 상대로 하여 정토의 소재와 그곳의 主佛인 아미타불이 현재도 설법하고 있음을 말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안양찬>에서는 극락과 더불어 안양을 말하고, 아미타불을 무량광, 무량수라고 하여 이를 좀더 친근하게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 이름만 듣고도 그 가운데 살 계책을 일념으로 알라는 불법의 뜻을 실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4) 임기중외, 앞의 책. 178쪽. 이하 경기체가의 해석은 모두 이 책을 따랐다.

5) 평정준영, 이태원역, 『정토삼부경개설』(보국사, 1988), 528쪽.

從是西方 過十萬億佛土有世界 名曰極樂 其土有佛 號阿彌陀 今現在說法

第三 純樂無憂	제3 : 즐거움만 있고 근심이 없다
彼佛國 無三惡 亦無八苦	저 부처님 나라, 삼악이 없고, 팔고도 없다.
往生人 身金色 皆具妙相	왕생하는 사람, 몸은 금색이요, 모두 묘상을 갖추었다.
宮殿隨身 衣食自然 一切具足	궁전이 몸을 따르고, 의식이 자연적이니, 모두가 갖추어졌다.
常享無極 亦希有	늘 누림이 끝없는 것, 또한 드문 일이다!
寶衣寶具 香饌珍羞 (再唱)	보배 옷과 보배 가구, 향기로운 음식과 진귀한 음식 (재창)
隨念現前	엄원에 따라 앞에 나타나도다!

제3장은 극락 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저 부처님 나라인 극락에는 삼악이 없고 팔고도 없으며 왕생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처럼 묘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衣食이 족하고, 모두 갖추어져 모든 것이 생각에 따라 자재한다는 것이다. 『아미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리불이여, 그 나라를 어떤 이유로 극락이라 이름하는가 하면 그 나라의 중생들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극락이라 이름하느니라.⁶⁾

이 부분은 서방 국도를 극락이라 부르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즉 불국토에는 四苦八苦의 괴로움이 조금도 없고 다만 즐거운 복만 있기 때문에 극락이라 이름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도 <안양찬>에서는 극락에 왕생하는 사람의 형상을 ‘몸은 금색이요, 모두가 묘상을 갖추었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의식주 생활에 대해서도 더 세세히 실감나게 전달해 주고 있다.

6) 위의 책, 529쪽.

舍利弗 彼土何故 名爲極樂 其國衆生無有衆苦 但受諸樂 故名極樂

第四 備體莊嚴	제4 : 몸에 장엄을 갖추다
七重欄 七重網 七重行樹	일곱 겹의 난간, 일곱 겹의 그물, 일곱 겹으로 심은 나무
七寶池 七寶臺 七寶樓閣	일곱 보배 연못, 일곱 보배 누대, 일곱 보배 누각
一一華麗 瑩徹無礙 交影重重	모두 화려하고, 빛은 끝없이 사무치고, 그림자는 겹겹이 교차하니
清淨嚴飾 亦希有	청정 장엄한 장식, 또한 드문 일이로다!
寶臺寶閣 寶樹寶網 (再唱)	보배 누대와 보배 누각, 보배 나무와 보배 그물 (재창)
莊嚴妙好	장엄하고 절묘하게 좋다!

제4장은 극락에 있는 七寶行樹의 장엄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극락에는 일곱 겹의 난간과 그물, 일곱 겹으로 심은 나무가 있고, 칠보로 이루어진 연못과 누대, 누각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그 형상이 매우 장엄함을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칠보행수의 장엄은 『아미타경』에도 그대로 묘사되어 있다.

사리불이여, 또 극락국토에는 일곱 겹의 난간과 일곱 겹의 그물이 있는 칠중(七重)으로 된 가로수가 있는데 모두 네 가지 보배로써 이루어져, 온 나라에 두루 하는 까닭에 그 나라를 극락이라 이름하느니라.⁷⁾

이 부분 역시 서방정토의 칠보행수를 묘사한 것으로, 먼저 나무의 장중함을 설하고 있다. 즉 극락정토에는 밑으로는 일곱 겹의 난간으로 둘러져 있고, 위로는 일곱 겹의 구슬 그물이 나무를 덮고 있는데, 그 나무는 뿌리, 줄기, 큰 가지, 작은 가지, 잎, 꽃, 열매[七重]를 갖추고 있는 나무로서 뒤섞이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늘어서 있다. 이들은 모두 금, 은, 유리, 파려

7) 위의 책, 529쪽.

又舍利弗 極樂國土 七重欄楯 七重羅網 七重行樹 皆是四寶 周匝圍繞 是故彼國 名曰極樂

등 네 가지 보배로 만들어져 있고, 그 나라에 잘 우거져 궁전과 보배 연못을 둘러싸고 있다⁸⁾는 것이다. <안양찬>에서는 이런 칠보행수가 ‘모두 화려하고 빛은 끝없이 사무치며, 그림자는 겹겹이 교차한다’고 하여 좀더 현장감 있고 실감나게 그 뜻을 전하고 있다.

第五 花池受生	제5 : 꽃연못에 왕생을 받다
七寶池 八德水 充滿其中	칠보 연못, 팔덕의 물, 그 가운데가 충만하고
池邊有 四階道 衆寶合成	연못가의 네 계단 길, 못보배가 이루어지다.
池中蓮花 大如車輪 開敷水面	못에 핀 연꽃, 수레 바퀴만하여 수면을 덮고
於中受生 亦希有	그 가운데에서 왕생 받는 것, 또한 드문 일이 도다!
九品花臺 次第碁布 (再唱)	구품화대가 차례로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으니 (재창)
隨分受生	분수를 따라 왕생을 받다!

제5장은 극락의 연못과 연꽃의 장엄에 대한 노래이다. 극락에는 칠보로 된 연못에 팔덕수가 충만하고, 못에 핀 연꽃은 수레바퀴만 하여 수면을 덮고 있다. 그리고 구품연화대가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어 구품들이 분수에 따라 왕생함을 언급하고 있다. 『아미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리불이여, 또 극락국토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여덟 가지 공덕이 있는 물로 가득하며, 연못 바닥에는 순수한 금모래가 땅에 깔려 있고, 사방에 있는 계단은 금, 은, 유리, 파려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위에는 누각이 있는데 금, 은, 유리, 파려, 자거, 산호, 마노로써 장식되어 있느니라. 연못 가운데 큰 것은 수레바퀴만한데, 푸른 꽃에서는 푸른 광채가 나고, 흰 꽃에서는 흰 광채가 나는데 미묘하고 향기로우니라. 사리불이여, 극락국토에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⁹⁾

8) 위의 책, 529쪽.

9) 위의 책, 530쪽.

又舍利弗 極樂國土 有七寶池 八功德水 充滿其中 池底純以 金沙布地 四邊階道 金銀琉璃

극락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고, 여덟 가지 공덕이 있는 물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다. 사방의 계단은 보배로 되어 있고, 언덕 위에는 누각이 칠보로 장중하게 장식되어 있다. 이렇게 『아미타경』에서는 연꽃과 연못의 장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해 「안양찬」에서는 연꽃·연못과 관련된 구품연화대를 언급하고 각자의 분수에 따라 왕생한다고 함으로써 못 중생들로 하여금 좀더 현실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며, 극락을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있다.

第六 十方遊行	제6 : 우주를 유람하여 행하다
黃金地 碧虛空 常作天樂	황금땅, 푸른 허공, 늘 하늘 풍악 울리고
雨天花 香芬馥 晝夜六時	하늘꽃이 비로 내리고, 향기가 주야로 내다.
其中衆生 身乘寶殿 寶衆妙花	중생들에게 보배 궁전 타게 하고, 많은 묘화를 주니
供養他方 亦希有	타방까지 공양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다!
十方佛土 飯食頃行 (再唱)	시방 불토에 밥먹는 것이 잠깐만이니 (재창)
往返無碍	가고오는 것이 거리낌이 없다!

제6장은 극락 세계의 모습 중 황금의 땅과 천악, 꽃의 장엄에 관해 노래하고 있다. 극락에는 땅이 황금으로 되어있고 푸른 하늘에는 늘 음악이 울리고 있으며 주야로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내린다. 그리고 극락에 사는 중생들은 그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타방의 부처에게 가서 공양을 한다는 것이다. 『아미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리불이여, 저 국토에는 항상 하늘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 황금으로 된 땅 위에는 밤낮 여섯 때에 만다라 꽃이 휘날리느니라. 그 나라 중생들은 항상 새벽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다른 세계의 십만 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곧 식사 전에 본국에 돌아와서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하느

玻瓈合成 上有樓閣 亦以金銀琉璃玻瓈磔磔 赤珠瑪瑙 而嚴飾之 池中蓮花 大如車輪 青色青光 黃色黃光 赤色赤光 白色白光 微妙香潔 舍利弗 極樂國土 成就如是功德莊嚴

나라. 사리불이여,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¹⁰⁾

극락 국토에는 미묘한 천악이 연주되고 있고,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다. 또 밤낮 여섯 때에 하늘의 만다라 꽃이 휘날리며, 그곳 중생들은 새벽마다 그 꽃을 바구니에 담아 아미타불을 비롯해 다른 세계의 십만억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 그리고 식사 전에 극락정토로 돌아와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한다. 이 대목도 <안양찬>에서는 ‘중생들에게 보배 궁전 타게 하고, 많은 묘화를 준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第七 聞音進修	제7 : 설법을 듣고 나아가 닦다
白鶴與 孔雀等 出和雅音	백학과 공작 등, 화락하고 청아한 소리 내고
微風吹 動諸樹 出微妙聲	미풍은 여러 나무를 움직여, 미묘한 소리를 낸다.
聞是音者 自然皆生 念佛法心	이 소리를 들은 자, 모두 자연히 불법의 마음을 내어
增進修行 亦希有	증진하여 수행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다!
寶樹寶臺 放光說法 (再唱)	보배 나무, 보배 누대, 빛을 내며 설법하니 (재창)
宣流法化	불법의 교화를 베풀어 전하도다!

제7장은 극락의 새와 바람, 나무의 장엄을 노래하고 있다. 극락에는 백학과 공작 등 여러 종류의 새들이 화기롭고 청아하게 노래 부르고, 미풍은 나무를 움직여 미묘한 음악 소리를 낸다. 이곳의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듣고 불법의 마음을 내어 수행한다는 것이다. 『아미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위의 책, 531쪽.

又舍利弗 彼佛國土 常作天樂 黃金爲地 晝夜六時 天雨曼陀羅華 其國衆生 常以清旦 各以衣祴 盛衆妙華 供養他方十萬億佛 卽以食時 還到本國 飯食經行 舍利弗 極樂國土 成就如是功德莊嚴

사리불이여, 저 나라에는 항상 여러 가지 아름다운 빛깔의 새들이 있는데 백조, 공작, 앵무새, 사리, 가릉빈가, 공명의 새 등 여러 가지 새들이 밤낮, 여섯 때에 우아한 소리를 내느니라. 이 소리는 오근(五根), 오력(五力), 칠보리분(七菩提分), 팔성도분(八聖道分) 등, 이와 같은 법을 설하고 있느니라. 그 나라의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며, 스님들을 생각하느니라. 사리불이여, 그대는 이 새들이 실로 죄업으로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부처님의 국토에는 삼악도가 없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 나라에는 삼악도라는 이름도 없는데, 삼악도가 실지로 있겠는가!

이 모든 여러 새들은 모두 아미타불께서 법음을 널리 베풀고자 화현으로 나타낸 것이니라. 사리불이여, 저 불국토에는 미풍이 불어 모든 보배 나무 및 보배 그물을 움직이면 미묘한 소리를 내느니라. 비유하면, 백천 가지 음악을 동시에 울리는 것과 같으니라.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모두 자연히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며 스님들을 생각할 마음을 내느니라.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의 국토에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¹¹⁾

이 대목은 화신의 새와 바람, 나무의 장엄을 설하고 있다. 앞부분에는 아름다운 새들이 밤낮 여섯 때에 우아한 소리를 내며, 이 소리를 들은 그 나라 중생들은 불법승 삼보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은혜와 법의 심오한 공덕과 스님의 큰 덕의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새는 죄악의 과보에 의해 축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 정도의 교주인 아미타불이 정법을 널리 알리고자 하여神通력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내용이다. 뒷부분은 바람에 관한 것으로, 극락에는 미풍이 불어 모든 보배나무와 그물을 움직여 미묘한 소리를 내는데, 이는 법음으로 이 소리를 들은 그 나

11) 위의 책, 532쪽.

復次舍利弗 彼國常有 種種奇妙 雜色之鳥 白鵠孔雀 鸚鵡舍利 迦陵頻伽 共命之鳥 是諸衆鳥 晝夜六時 出和雅音 其音演暢 五根五力 七菩提分 八聖道分 如是等法 其土衆生 聞是音已 皆悉念佛念法念僧 舍利弗 汝勿謂此鳥實是罪報所生 所以者何 彼佛國土 無三惡趣 舍利弗 其佛國土尚無三惡道之名 何況有實 是諸衆鳥 皆是阿彌陀佛 欲令法音宣流 變化所作 舍利弗 彼佛國土 微風吹動 諸寶行樹及寶羅網 出微妙音 譬如百千種樂同時俱作 聞是音者 皆自然生念佛念法念僧之心 舍利弗 其佛國土 成就如是功德莊嚴

라 중생들은 또 자연히 부처님과 불법, 스님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안양찬>에서는 보배 나무와 보배 누대가 빛을 내며 설법한다고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모든 것이 불법의 교화를 베풀어 전하는 것이라고 교도자적인 입장에서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第八 長壽等佛	제8 : 긴 수명이 부처님과 같다
阿彌陀 成正覺 於今十劫	아미타불, 정각을 이루신 지, 열 겁이 되셨고
往生人 無高下 與佛齊壽	왕생인, 위아래 없이, 부처님과 더불어 수명이 길다.
十念成就 承佛願力 自然往生	십념(十念)하여 성취하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저절로 왕생하리니
永斷生死 亦希有	영원히 생사를 여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다!
承佛願力 十念往生 (再唱)	부처님의 원력 받아, 십념으로 왕생 염원 (재창)
壽命長遠	수명이 길고 멀리라.

제8장은 정토의 교주인 아미타불에 관한 노래이다. 즉 아미타불은 십 겁 전에 성불하였으며, 왕생인들도 모두 아미타불같이 길고 먼 수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아미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저 부처님을 무슨 이유로 아미타불이라 하는 줄 아는가. 사리불이여, 저 부처님의 광명은 무량하여 시방 세계를 비추어도 결핍이 없는 까닭에 아미타불이라 부르느니라. 또 사리불이여, 저 부처님의 수명 및 사람들의 수명도 무량수변 아승지 겁인 까닭에 아미타불이라 이름하느니라. 사리불이여, 아미타불께서 성불하신 지는 이미 십겁이 되느니라.¹²⁾

12) 위의 책, 533~534쪽.

舍利弗 於汝意云何 彼佛何故號阿彌陀 舍利弗 彼佛光明無量 照十方國 無所障礙 是故號爲阿彌陀 又舍利弗 彼佛壽命及其人民 無量無邊阿僧祇劫 故名阿彌陀 舍利弗 阿彌陀佛成佛已來 於今十劫

여기서는 아미타불의 성불과 이름의 뜻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아미타불은 십 겁 전에 성불하였으며, 아미타불의 광명과 수명이 무량하여 무량광, 무량수의 아미타불임을 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안양찬>에서는 뜻 중생이 십념하여 성취하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저절로 왕생하게 되며, 그 수명이 장원할 것이라고 하여 중생이 그 뜻을 좀더 쉽게 깨달을 수 있게 전달하고 있다.

第九 因友進道	제9 : 벗으로 인하여 도에 나아가다
觀世音 大勢至 無量海衆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
具善根 有福德 諸上善人	선근을 갖추고, 복덕있는 여러 상선인들
於中坐臥 見聞熏習 精進修行	그 가운데 앉고 눕고 듣고 보고熏습하여 정진수행하니
同趣菩提 亦希有	같이 보리에 나가는 것, 또한 드문 일이도다!
諸上善人 以爲法侶 (再唱)	여러 상선인을 법의 동반자로 삼아 (재창)
熏習增進	熏습하여 더욱 나아가리다!

제9장은 극락에 있는 사람들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상선인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불도를熏습하고 정진 수행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아미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 사리불이여, 저 부처님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문 제자가 있는데 모두 아라한들이다. 이들은 산수와 비유로써 알 수 없느니라. 또 모든 보살들도 이와 같느니라. 사리불이여, 저 부처님의 나라에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또 사리불이여, 극락국토에 태어난 중생들은 모두 아비발치이며, 그 가운데 많은 중생들이 일생보처에 오른 이들로, 그 수효는 매우 많아 셈으로도 능히 알 수 없어 무량무변 이승지 겁이라 말할 뿐이니라.¹³⁾

13) 위의 책, 534쪽.

이 대목은 극락 세계에 있는 성문과 보살들에 대해 설한 내용이다. 즉 아미타불께는 무수한 성문 제자와 보살이 있으며 극락에 있는 많은 중생들이 등각을 이루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안양찬>에서는 정도에 있는 보살 중 대중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상선인들에 대해서도 ‘선근을 갖추고 복덕 있는’ 사람들이라고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을 범의 동반자로 삼아 혼습 정진해야 하는 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第十 念佛蒙化	제10 : 부처님을 염원하여 교화를 입다
若一日 若二日 乃至七日	이렇게 하루 이틀, 내지 칠 일간을
一心念 阿彌陀 諸罪消滅	한마음으로 아미타불 염원, 모든 죄가 소멸한다.
臨命終時 蒙佛菩薩 放光接引	목숨을 마칠 때, 빛을 내는 불보살의 인도 입으니
九蓮花往 亦希有	구품연대 화하여 왕생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다!
已發今發 當發願王 (再唱)	과거 발원, 현재 발원, 미래도 발원의 왕이리니 (재창)
皆得往生	모두 왕생을 얻으리라!

제10장은 염불왕생에 관한 내용으로 누구나 하루 이틀 내지 칠일간을 한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외면 모든 죄가 소멸하고, 극락에 왕생함을 노래하고 있다. 결국답게 모든 중생이 불법을 수행하고 염불하여 극락 왕생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아미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리불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지니어 혹은 하루, 혹은 이틀, 혹은 사흘, 혹은 나흘, 혹은 닷새, 혹은 엿새, 혹은 이레 동안 일심으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임종시에 아미타불이 모든 성중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 사람은 임종시에 마음이

又舍利弗 彼佛有無量無邊聲聞弟子 皆阿羅漢 非是算數之所能知 諸菩薩衆 亦復如是 舍利弗 彼佛國土 成就如是功德莊嚴 又舍利弗 極樂國土 衆生生者 皆是阿鞞跋致 其中多有一生補處 其數甚多 非是算數所能知之 但可以無量無邊阿僧祇劫說

변하지 아니하고 곧 아미타불의 극락국토에 왕생하게 되느니라.¹⁴⁾

위 글은 극락 세계에 대해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기를 발원해야 하며, 극락 왕생하기 위해서는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고 그 명호를 불러 일심으로 염불수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양찬」에서는 이렇게 아미타불을 염원하면 모든 죄가 소멸한다고 분명히 제시하고, 그 분수에 따라 구품연대에 왕생하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여 불경의 궁극적인 내용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좀더 쉽게 실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 <미타경찬>

<미타경찬>은 『아미타경』의 공덕을 찬양한 노래이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리불을 상대로 먼저 극락 세계의 갖가지 장엄에 대해 설하고, 六方의 다른 부처님 증명으로 믿음을 권하는 내용이다.

第一 開示捷徑	제1 : 지름길을 열어 보이다
大矣哉 大導師 釋迦文佛	위대하다, 대도사 석가모니불
應群機 開三乘 無法不說	수많은 근기에 따라, 삼승을 열고 설법하지 않음이 없다.
更於其間 別開方便 演說是經	다시 그 사이, 따로 방편을 열어, 아미타경을 말씀하시네.
令修淨土 最希有	정토를 닦게한 것, 매우 드문 일이도다!
大悲世尊 說示此經 (再唱)	대비세존, 이 경을 저자에서 설하시니 (재창)
如暗得證	마치 어두운 데서 등불을 얻는 것 같다!

14) 위의 책, 535쪽.

舍利弗 若有善男子善女人 聞說阿彌陀佛 執持名號 若一日 若二日 若三日 若四日 若五日 若六日 若七日 一心不亂 其人臨命終時 阿彌陀佛 與諸聖衆 現在其前 是人終時 心不顛倒 卽得往生 阿彌陀佛極樂國土

第二 指途迷倫	제2 : 중생에게 길을 가리키다
可憐生 可憐愍 我等衆生	가련한 삶,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 가련한 우리 중생들
生復死 死復生 苦無盡期	태어나서 죽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니, 이 고통이 끝이 없다.
惟我世尊 善權方便 開示勸進	오직 우리 세존, 좋은 방편으로, 열어보여 나가기를 권하시니
舍不退墮 亦希有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도다!
惟我本師 導生大悲 (再唱)	오직 우리 본사 중생을 큰 자비로 이끄시니 (재창)
如保赤子	마치 어린 아이를 보호하는 것과 같도다!

제1장과 2장은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있을 때 대비구 1250명 가운데 사리불을 상대로 『아미타경』을 설하신 은덕을 노래하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부처님이 수많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불법을 설할 때 이 『아미타경』을 설하니 이는 마치 어두운 가운데서 등불을 얻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다. 제2장은 생사를 거듭하는 가련한 중생에게 여러 가지 좋은 방편을 권유하여 한 명도 다른 곳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대자비가 마치 어린 아이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애증함을 읊고 있다. 이는 『아미타경』의 序分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대비구 천이백오십인이 함께 모였는데 모두 대아라한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들이었다. 장로 사리불, 마하 목건련, …… 건타하제보살, 상정진보살 등 이와 같은 대보살 및 석제환인 등 헤아릴 수 없는 모든 하늘의 대중들이 함께 모였다.

그 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십만 억 불국토를 지나서 극락이라 이름하는 세계가 있느니라. 그 국토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미타불이라 하며 현재도 법을 설하고 계시느니라.¹⁵⁾

15) 위의 책, 527~528쪽.

一時佛 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 與大比丘僧 千二百五十人俱 皆是大阿羅漢 衆所知識 長老

위 내용을 <미타경찬>의 제1장과 2장에서는 석가모니가 『아미타경』을 설하는 상황과 그 방법의 우수함, 그리고 그러한 부처님의 대자비를 못 중생에게 설명하고 알리는 식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第四 讚佛勸念 彼佛號 無量光 亦無量壽 我本師 示人天 所以無量	제4 : 부처님을 찬양하여 염원을 권하다 저 부처님 이름, 무량광이며 또한 무량수니 우리 본사 인간계와 천상계에 보이신 것 헤아릴 바 없다.
不可思議 功德之利 滿口稱揚 勸令勤念 亦希有 我大導師 衆聖中尊 (再唱) 讚彼彌陀	불가사의한 공덕의 이로움 입 모아 찬탄하노니 권하여 염원케 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다대! 우리 대도사, 못신성 중에 존귀하시니 (재창) 저 아미타불을 찬양하는도대!

제4장은 정토의 교주에 관한 내용이다.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라고도 하며 그 공덕이 신이하고 헤아릴 수 없다고 찬탄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아미타경』에 나오는 내용이나, 『아미타경』에서는 단순히 아미타불이란 이름의 뜻과 그가 십 겁 전에 성불한 사실에 대해서만 설하고 있다(주 11 참조). 그러나 <미타경찬>에서는 단순히 아미타불이란 이름의 뜻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의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음과 그 힘의 불가사의함을 칭양하여 중생이 이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진지하고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第六 此彼相接 如本師 釋迦尊 讚佛功德 彼諸佛 亦稱讚 我佛如來	제6 : 두 부처가 서로 접하다 본 스승 석가세존처럼 부처님 공덕을 찬양하노니 저 모든 부처님도 우리 부처 여래를 찬양하시다.
---	--

舍利弗 摩訶目乾連 …… 乾陀訶提菩薩 常精進菩薩 與 如是等諸大菩薩 及釋提桓因等 無量諸天 大衆俱 爾時佛告 長老舍利弗 舍利弗 過十萬億佛土有世界 名曰極樂 其土有佛 號阿彌陀 今現在說法

能於五濁 成大菩提 說難信法	능히 오탁에서 큰 보리를 이루어, 믿기 어려운 법을 베푸시니
如是相讚 亦希有	이같이 서로 찬양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도다!
彼此如來 皆因極樂 (再唱)	두 여래가 서로 말미암아 극락이니 (재창)
互相稱讚	서로 칭송하여 찬양하도다!

제6장은 모든 부처님은 석가여래의 공덕을, 석가모니불은 여러 부처의 공덕을 서로 찬탄하며 믿음을 권하는 내용이다. 석가모니불과 모든 부처가 찬양하며 권하는 믿음을 잘 지키면 모두가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여 믿음을 적극 권하는 실제적 내용을 담고 있다. 『아미타경』에서는 마지막 일절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 단원을 맺는 말이다. 『아미타경』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사리불이여, 내가 지금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듯이 저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시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은 참으로 어렵고 드문 일을 하시고 능히 사바세계의 오탁악세 즉 겁탁, 건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가운데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어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세간이 믿기 어려운 법을 말씀하셨다.”고 하셨느니라. 사리불이여,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내가 이 오탁악세에서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어 일체 세간을 위하여 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라.¹⁶⁾

第七 人天共遵	제7 : 사람과 하늘이 모두 법도를 따르다
讚淨土 讚彌陀 說此經已	정토 찬양, 아미타불 찬양하여, 이 경 설
	법을 마치니

16) 위의 책, 543쪽.

舍利弗 如我今者稱讚諸佛不可思議功德 彼諸佛等 亦稱說我不可思議功德 而作是言 釋迦牟尼佛 能為甚難希有之事 能於娑婆國土五濁惡世 劫濁見濁煩惱濁衆生濁命濁中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為諸衆生 說是一切世間難信之法 舍利弗 當知 我於五濁惡世 行此難事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為一切世間說此難信之法 是為甚難

舍利佛 諸比丘 八部龍天	사리불, 모든 비구, 팔부용천이
聞佛所說 歡喜踴躍 信受奉行	부처께서 설한 바 듣고, 기뻐 뛰면서 믿음 받아 행하도다.
流通法化 亦希有	법화를 유통시키는 것, 또한 드문 일이도다!
聞經受持 發願往生 (再唱)	경을 듣고 계율 지켜 왕생을 발원하니 (재창)
其數無量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도다!

제7장은 석가모니가 극락 세계와 아미타불을 찬양하는 설법을 마치니 사리불과 모든 비구, 팔부용천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왕생을 발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아미타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여 마치심에 사리불 및 모든 비구, 일체 세간의 천인, 이수라 등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를 듣고 기뻐하여 받아 지니고 예배하고 나서 물러갔다.¹⁷⁾

이 부분 역시 <미타경찬>에서는 설법의 내용을 정토 찬양, 아미타불 찬양이라고 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부처께서 설한 바를 듣고 기뻐 뛰면서 믿음 받아 행하고, 많은 이들이 계율을 지키며 왕생을 발원한다고 하여 그 믿음의 본보기를 실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 요약적 수용

(1) <안양찬>

17) 위의 책, 545쪽.

佛說此經已 舍利弗及諸比丘 一切世間天人阿修羅等 聞佛所說 歡喜信受 作禮而去

第一 彼此同化	제1 : 두 부처가 함께 교화하시다
大導師 阿彌陀 現彼接引	대도사이신 아미타불, 극락에서 중생교화하시고
我本師 釋迦文 勸令往生	우리 본스승 석가모니, 권면하여 극락 왕생케 하다.
彼此如來 同以大悲 各設方便	두 부처 여래, 함께 큰 자비로써 각각 방편을 설하시니
共度迷倫 寂希有	두 분의 중생 제도, 가장 드문 일이도다!
彼佛此佛 大悲大化 (再唱)	저 부처님과 이 부처님의 큰 자비, 큰 교화. (재창)
恩踰父母	은혜가 부모님보다 낫도다!

제1장은 서사로서, 대도사인 아미타불과 본스승이신 석가모니가 중생의 극락왕생을 위해 교화하는 은혜가 부모보다 크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즉 아미타불은 서방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석가모니는 미혹한 중생을 권면하여 극락왕생케 한다는 것인데 이는 『아미타경』의 전체적인 틀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다. 또 이런 자비로운 은혜가 자신을 낳고 키워주신 부모의 은혜보다 낫다고 함으로써 두 부처님의 교화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

(2) <미타경찬>

第三 讚土合祈	제3 : 불국토를 찬양하여 기쁘게 하다
彼佛國 名極樂 安養淨土	저 부처님 나라, 이름하여 극락이니 안양정토라.
我本師 示人天 所以爲樂	우리 본사, 인간계와 천상계에 보여주니 기쁘도다.
其中莊嚴 種種殊勝 滿口稱揚	그 장엄한 가운데, 갖가지로 수승하니, 입모아 찬탄하노니
勸令往生 亦希有	권하여 왕생케 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도다!
我大導師 無上法王 (再唱)	우리 대도사, 이상없는 법왕이시니 (재창)
讚彼淨土	저 극락 정토를 찬양하는도다!

제3장에서는 먼저 극락을 소개하고 그곳의 수승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

다. 이 대목은 『아미타경』의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아미타경』에는 극락이란 이름의 뜻을 설하고, 이어 정토의 수승한 모습을 칠보행수와 연꽃, 누각, 연꽃의 장엄, 황금의 땅과 음악, 꽃의 장엄, 그리고 화신의 새, 바람, 나무의 장엄에 대해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미타경찬>에서는 이런 내용을 ‘그 장엄한 가운데 갖가지로 수승하니’라고 하여 아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안양찬>의 제2, 3, 4, 5, 6, 7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아미타경』의 원문은 <안양찬>의 각 장에 인용한 것과 같다.

第五 六方同讚	제5 육방을 함께 찬양하다
東南方 西北方 上下諸佛	동남방, 서북방, 상하의 여러 부처님.
廣長舌 遍大千 說誠實言	장광설로大千세계를 편력, 정성으로 설법하시다.
汝等衆生 當身諸佛 所護念經	중생들 마땅히 부처님들을 믿고 경전을 지키리니
如是同讚 亦希有	이처럼 함께 찬양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도다!
佛佛皆以 廣長舌相 (再唱)	부처님마다 모두 장광설이시니 (재창)
同讚勸持	함께 찬양하여 지키기를 권하도다!

제5장은 동방, 남방, 서방, 북방, 하방, 상방에 있는 다른 부처님의 증명으로 믿음을 권하는 내용이다. 『아미타경』에서는 먼저 동방 세계에는 아촉비불, 수비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음불이, 남방 세계에는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염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이, 서방 세계에는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광불, 대명불, 보상불, 정광불이, 북방 세계에는 염견불, 최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이, 하방 세계에는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지법불이, 상방 세계에는 범음불, 속왕불, 향상불, 향광불, 대염견불, 잡색보화엄신불, 사라수왕불, 보화덕불, 견일체의불, 여수미산불이 있음을 말하고, 여섯 항목 각각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향하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모든 부처님들이 제각기 그 나라에서 넓고 긴 혀를 내밀어 두루 삼천대천세계를 덮어 진실한 말씀으로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고 모든 부처님이 호념하신 이 경을 믿

으라고 하시느니라.”¹⁸⁾란 문구를 달아 육방의 모든 부처님도 석존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명하여 믿음을 권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런 장황한 내용을 <미타경찬>에서는 상당히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말씀을 모두 찬양하며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다.

第八 現未俱益	제8 : 현세와 미래가 함께 유익하다
正像法 各千年 已成過去	정법 상법, 각각 천 년, 이미 과거를 이루었고
往生人 不可計 皆承經力	왕생인 계책할 수 없어, 모두 이 경전의 힘을 받들다.
奇歎此經 群經滅後 獨留於世	기특하다, 아미타경! 많은 경이 사라진 뒤, 홀로 세상에 남았다.
度盡有緣 亦希有	모든 인연있는 중생 제도, 또한 드문 일이도대!
凡有見聞 皆得往生 (再唱)	무릇 건문이 있어, 모두 왕생을 얻으리니 (재창)
同登彼岸	함께 극락에 오르도대!

제8장은 세상에 모든 경전이 사라진 뒤에도 『아미타경』만이 홀로 남아 중생을 극락 왕생케 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즉 『아미타경』을 보고 듣는 사람은 모두 왕생을 얻게 된다는 것으로 결국 『아미타경』에서 주지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대의를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第九 已發機感	제9 : 좋은 근기를 쉽게 감응시키다
過去與 現在世 無量諸佛	과거와 현재의 무량제불
莫不爲 度衆生 出現於世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세상에 출현하지 않음이 없다.
我等佛子 於彼諸佛 早當廻機	우리 불제자, 저 부처님들께 일찌감치 우리의 근기를 돌이키니
到此知非 亦希有	여기에 이르러서 그른 것을 알게 되니, 또한

18) 위의 책, 537쪽.

如是等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出廣長舌相 遍覆三千大千世界 說誠實言 汝等衆生 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 一切諸佛所護念經

드문 일이로다!

奇哉妙哉 我佛風化 (再唱)
忽然回頭

기이하고 묘하다, 우리 부처님의 교화여.(재창)
문득 머리를 돌려 우러르다!

제9장은 무량수, 무량광으로 불리는 아미타불에 대한 칭송이다. 즉 과거와 현재의 아미타불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출현하여 중생의 근기를 돌이켜 교화하니 모든 사람은 이 교화를 받들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아미타경』에 나오는 내용을 포괄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아미타불의 자비와 교화의 덕을 받아 모든 중생이 함께 왕생의 길로 들어설 것을 권고하고 있다.

第十 普念回向
離生死 大方便 無教佛說

指徑路 度群迷 此尤深切
無始至今 長沉愛河 不知出要

因此知歸 亦希有
廣矣大矣 此經威德 (再唱)
靡然趨化

제10 : 널리 회향을 염원하다
생사를 여의는 큰 방편 가르쳐서 설법하지 않음
이 없으니
지름길 가르쳐 미혹된 중생 구제, 더욱 간절하다.
지금까지 길이 애육의 물을 빠져나오는 법을 몰랐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것, 매우 드문 일이로다!
넓고도 크도다, 이 경의 위덕 (재창)
미연히 교화에 나가리다!

제10장은 생사를 떠나는 큰 방편과 지름길을 가르쳐 설법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아미타경』의 위대한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는 『아미타경』의 전체적 내용과 그 덕을 포괄하여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미혹한 중생들이 이 경으로 말미암아 생사의 길을 벗어나 회향하여 교화의 길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한 내용이다.

Ⅲ. 불경의 변용 양상

<안양찬>과 <미타경찬>은 『아미타경』의 내용을 더 구체적이거나 요약적으로 수용하되, 이를 경기체가의 시가적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작품이다. 『아미타경』의 문구는 <안양찬>과 <미타경찬> 각 장의 1~3행에 대개 인용되어 있으며, 나머지 행은 이 내용을 포괄하여 작가의 창작 의도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기체가 작품적 질서를 이루는 원리로서 개별화의 원리 외에 포괄화의 원리도 있음을 알게 해준다. 포괄화의 원리는 일단 개별적인 것으로 제시된 사물들을 하나의 종합적 개념으로 묶는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작용이 있음으로 해서 개별적인 사물들은 그 자체의 고유한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또한 서로 관련을 맺는 집약점을 가지게 된다”¹⁹⁾는 경기체가의 장르적 성격에 잘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에 근거해서 두 작품을 살펴보면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아미타경』의 내용을 수용하되,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이를 약간 변용시켜 작가의 창작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 주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찬양적 변용

<안양찬>과 <미타경찬>은 우선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讚’의 성격을 지닌 노래이다. 각 작품이 안양을 찬양하고, 『아미타경』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아미타경』의 문구를 근거로 이를 수용한 후 이에 대한 찬양의 뜻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먼저 <안양찬>서 보면, 『아미타경』에는 극락 세계에 있는 아미타불이

19) 조동일, 「경기체가의 장르적 성격」, 김학성·권두환, 『고전시가론』(새문사, 1992), 248쪽.

현재도 설법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해 그 성회가 바다처럼 밝음을 찬양하고 있으며(제2장), 『아미타경』에는 극락에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대해 극락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염원에 따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찬양하고 있다(제3장).

또한 『아미타경』에는 극락에 칠보행수가 있다고만 설하고 있는데 대해 극락의 칠보행수와 누대와 누각들이 장엄하고 절묘하게 좋음을(제4장), 『아미타경』에는 극락에 칠보로 된 연못과 연꽃이 있다고만 한 것에 대해 구품연화대가 펼쳐져 있어 모두 각자의 분수에 따라 왕생을 받을 수 있음을(제5장), 『아미타경』에는 극락에는 아름다운 새와 바람, 나무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보배 나무와 보배 누대가 빛을 내며 설법하니 이는 불법의 교화를 베풀어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제7장) 찬양하고 있다.

이어 『아미타경』에는 아미타불이 십 겁 전에 성불하였다고만 한 데 대해 왕생인들도 심념하여 성취하면 아미타불같이 장원한 수명을 누릴 수 있음을(제8장), 『아미타경』에는 극락에는 많은 무리가 있음을 이야기한 데 대해 그들이 모두 불도를 훈습하여 정진 수행하는 모습을(제9장) 높여 찬양하고 있다.

<미타경찬>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장의 후반부에 찬양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아미타경』에는 석가모니불이 못 중생에게 『아미타경』을 설한다고 한 것에 대해 그것은 마치 어두운 데서 등불을 얻는 것과 같다고 찬양하고 있으며(제1장), 『아미타경』에는 석가모니불이 여러 가지 좋은 방편으로 중생을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 그것이 마치 어린 아이를 보호하는 것과 같음을(제2장), 『아미타경』에는 극락의 여러 가지가 수승함만을 이야기한 데 대해 아미타불이 못 중생을 권하여 왕생케 하는 이상 없는 법왕임을(제3장), 『아미타경』에는 아미타불이 십 겁 전에 성불했다고만 한 것에 대해 그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드러내고 그가 못 신성 중에 존귀함을(제4장) 찬양하고 있다.

또한 『아미타경』에는 육방 부처님의 증명으로 믿음을 권한 데 대해 부

처님마다 모두 장광설이며, 함께 찬양하여 지키기를 권함(제5장), 『아미타경』에는 모든 부처님과 석가모니불이 서로 찬탄하여 믿음을 권한다고만 한 것에 대해 두 여래가 서로 말미암아 극락임을(제6장), 『아미타경』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모든 이들이 기뻐 예배하며 물러갔다고 한 것에 대해 경을 듣고 계율지켜 왕생을 발원하는 이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음을(제7장)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두 작품은 『아미타경』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되, 이를 약간 변용하여 찬양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찬양적 변용은 이 글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우선 대상을 우러르게 하며, 나아가서는 이를 흠모하게 함으로써 불교를 포교하려는 작가의 본래 의도를 성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교화적 변용

<안양찬>과 <미타경찬>은 『아미타경』의 내용을 수용하여 이를 찬양함과 동시에 못 중생을 교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두 작품에서 『아미타경』을 인용한 부분 외에 그 뜻이 교화적으로 변용된 대목을 적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안양찬>

- ① 寶衣寶具 香饌珍羞 (再唱)
隨念現前 (제3장)
- ② 九品花臺 次第碁布 (再唱)
隨分受生 (제5장)
- ③ 承佛願力 十念往生 (再唱)
壽命長遠 (제8장)
- ④ 諸上善人 以爲法侶 (再唱)
熏習增進 (제9장)
- ⑤ 已發今發 當發願王 (再唱)

皆得往生

(제10장)

■ <미타경찬>

⑥ 諸上善人 以爲法侶 (再唱)

熏習增進

(제7장)

①의 경우 『아미타경』에는 극락에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해 <안양찬>에서는 중생을 교화하고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화려하고 좋은 모든 것이 생각에 따라 자재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②의 경우도 『아미타경』에는 극락에 있는 연못, 누각, 연꽃의 장엄에 관한 내용만 있는데 대해 그곳에 구품연화대가 차례로 벌려 있어 각자 분수에 따라 왕생한다고 함으로써 못 중생도 왕생을 하게 하고자 교화하려는 교화적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③의 경우도 『아미타경』에는 정토의 교주인 아미타불이 무량광, 무량수임을 밝히고, 성불한 지 십겁이 넘었다고만 하였는데, <안양찬>에서는 부처님의 원력을 받아 십념으로 왕생을 염원하면 모두 아미타불처럼 수명이 길고 멀리라는 교화, 포교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의 내용도 『아미타경』에는 극락에 있는 여러 성문과 보살들이 등각을 이루었다는 내용만을 전하고 있는데 대해, <안양찬>에서는 이 글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여러 상선인을 본받아 훈습하여 더욱 불도에 정진 수행할 것을 권유하는 교화적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⑤의 경우도 『아미타경』에서는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고 염하면 모두 극락 왕생하게 된다는 내용만을 전하고 있는데, <안양찬>에서는 아미타불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발원의 왕이라고 하여 그의 위덕으로 모든 중생이 왕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대상을 높여 찬양하고 모든 이들이 이를 흠모하고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⑥의 경우도 『아미타경』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사리불과 모든 성문, 비구들이 모두 기뻐하며 말씀을

받아 지니고 예배에서 물러갔다고만 되어 있는데, <미타경찬>에서는 이 경을 듣고 계율을 지켜 왕생을 발원하는 사람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하여 지도자적 입장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불교를 포교하려는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타경찬>의 제8, 9, 10장에는 『아미타경』의 문구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아미타경』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각 장에서 아미타불과 『아미타경』의 위력을 예시하고 모든 사람이 이를 흠모하여 불법의 길에 오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제8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경이 사라진 뒤에도 홀로 남아있는 『아미타경』의 위력을 설하고, 무릇 이를 보고 듣는 자는 모두 왕생을 얻어 극락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포교하고 있다. 제9장에서는 과거와 현재에 출현해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의 교화를 머리 돌려 우러르며 다같이 따르자는 교화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 제10장에서는 미혹된 중생들이 이 『아미타경』의 위덕을 받아 교화에 나가게 되는 것을 찬양하며 이 노래를 보는 모든 이들도 교화되기를 염원하는 뜻을 간곡히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작품에서는 『아미타경』의 내용을 근거로 하되 이를 약간 변용하여 작품 전반에 교화적 성격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불경의 내용을 수용하되 교화적으로 변용시키는 것은 두 작품이 포교에 목적을 둔 포교문학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함허당은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 사회에서 당시 시가의 주류를 이루었던 경기체가를 세 작품이나 지었는데, <미타찬>과 <안양찬>, <미타경찬>이 그것이다. 이 중 <안양찬>과 <미타경찬>은 『아미타경』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그 뜻을 드러냈는데, 그 수용 양상은 구체적 수용과 요약적 수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구체적 수용은 『아미타경』의 내용을 수용하되 보

는 이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좀더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다. <안양찬>의 경우 제1장을 제외한 나머지 9장에서, <미타경찬>은 제1, 2, 4, 6, 7장에서 볼 수 있다. 요약적 수용은 『아미타경』의 내용을 수용하되 각 장의 주된 뜻을 전달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면 불경의 많은 양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불경의 대의를 간추려 그 뜻만 전한 것이다. 이는 <안양찬>의 제1장과 <미타경찬>의 제3, 5, 8, 9, 10장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구체적 수용과 요약적 수용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불경의 뜻을 더욱 쉽게 풀이하여 전달하는 한편 불경을 생활 속에서 생생하고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두 작품에서는 『아미타경』의 내용을 약간 변용시켜 그 뜻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찬양적 변용과 교화적 변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찬양적 변용은 『아미타경』의 전체적 요지와 세부 내용은 물론 아미타불을 받들어 찬양하는 뜻을 포괄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교화적 변용은 불경의 사실에 작가가 개입하여 지도자적 입장에서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는 뜻을 첨가한 것이다. 이런 창의적 변용으로 두 작품은 작가의 창작 의도를 더욱 명백히 드러내고 있으며, 경기체가의 교술적 성격을 잘 살려 포교문학으로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임기중 외, 『경기체가 연구』, 태학사, 1997.
평정준영, 이태원 역, 『정토삼부경개설』, 보국사, 1988.
김문기, 「불교계 경기체가 연구」, 『성곡논총』 22, 성곡학술문화재단, 1991.
김창규, 「합허당고」, 『동양문화』, 제6·7집, 영남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68.
불교학연구회편, 『한국고승집』, 이조시대 1, 경인문화사, 1974.

<투고일 : 2006. 6. 30.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Abstract>

A Study of Ham Heo-dang's Kyunggiche-ga

Cho, Yeon-suk

"Anyang-chan" and "Mitakyung-chan", among the Kyunggiche-ga of Ham Heo-dang, expressed the meanings through the reception of *Amita-gyeong*. The reception can be divided into two styles: concrete reception and condensed reception. Both styles help people understand the sutra by putting it into easier words and making people to experience it in daily lives.

On the other hand, those two works initiate *Amita-gyeong* with two types of modification with different purposes. One is to praise and the other is to enlighten. By those two distinctive types of modification, not only do the works clearly convey the author's purposes of writing, but also carry out the roles of missionary literature.

Keywords : Ham Heo-dang, Anyang-chan, Mitakyung-chan,
Amita-gyeong, reception, modification

к с і